

세계적 건축가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밑그림 그린다

광주시, 국내외 8개사 초청 국제설계공모...3월 20일 당선작 최종 발표 국내 대표 랜드마크 조성 기대...내년 상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 반영

세계적 건축가들이 광주 첫 복합쇼핑몰 입지로 급부상한 광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의 밑그림을 그린다.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30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설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국제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설계공모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실현과 도시·건축 디자인 수준 제고를 위해 협상조건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사전협상 제도는 1만㎡ 이상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개발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부지개발사업자인 ㈜휴먼스튜디오에프브이로부터 협상제안서를 접수 받

은 이후 민간 사업자측 협상단,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가동했다. 협의회는 5차례 회의를 거쳐 설계공모 일정, 지명초청대상 선정, 심사위원 구성 등 설계공모지침을 마련하고, 설계공모 공고문을 냈다.

협상조정협의회는 국제적 인지도와 전문성을 고려해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지명초청 대상으로 국내외 8개사를 선정할 상태다.

국외 초청대상은 7개사는 베노이(Benoy·영국),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처(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프랑스), 지엠티 아키텍처(GMP Architekten·독일), 마시밀리아노 푸카스(Massimiliano Fuksas·이탈리아), 엔엘 아키텍츠(NL Architects·네덜란드), 유엔 스튜디오(UN Studio·네덜란드), 어반 에이전시(Urban Agency·덴마크)다. 국내 초청대상은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개사다.

이번 설계공모는 지명 초청한 8개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오는 3월 15일까지 작품접수를 받은 뒤 기술검토·작품심사를 거쳐 3월 20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설계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www.jj-cd.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설계공모 당선자(1개사)에게는 랜드마크 계획설계권에 대한 계약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초청사에게는 1억원 상당의 참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광주시는 이번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를 거쳐 오는 7월까지 부지개발사업자인 ㈜휴먼스튜디오에프브이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협상결과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최원석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상업·업무·문화·주거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면 광주 도심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창출과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실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광주일보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찬영)의 '2023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로 선정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30일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로 광주일보를 비롯한 지역 일간지 30개사와 주간지 45개사 등 모두 75개사를 확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일간지로는 광주일보를 비롯해 매일신문, 강원일보, 부산일보, 전북일보 등 지역을 대표하는 유수 언론사들로 구성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일간지 우선지원 대상사는 제작·취재·판매·광고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 기자채용 및 인사관리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올해로 창간 71년을 맞은 광주일보는 선도적인 지면채신과 경영개선 등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 신문사로서 위상을 지켜오고 있다.

광주일보는 이번 선정에 계기로 기획취재, 지면개선, 시민기자 활용, 연수교육사업, 창의 주도형사업 등 지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전남도,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올해부터 양·한방 지원대상 소득·연령·횟수 제한 없어

전남도가 올해부터 양·한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나이 등 제한 없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남아 있어도 소득 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초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전체 난임부부에 대해 횟수와 소득기준 없이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20만~150만원을 지원해 수혜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한방 난임치료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 제한이 폐지되고 사실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한방치료는 1인당 1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난임부부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정책조정관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다"며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난임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정서적으로 어려운 난임부부와 임신 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우울증 검사 전문 치료를 무료로 받도록 순천향대여성아동병원에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178건, 1530명이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기적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는 5월쯤"

정기적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전면 해제되는 시점을 5월경으로 예측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2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개인적으로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모든 논의는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때까지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해제를 시행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2단계로 모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해제된 실내 마스크 의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장소라 하더라도 고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서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태국 관광객 2400여명 전세기로 무안 첫 입국

목포·신안·담양 등 전남 관광 베트남·필리핀도 유치 나서



30일 오전 태국에서 온 단체관광객이 전세기를 통해 무안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이번에 입국한 관광객들은 3박4일간 목포 해상케이블카, 신안 퍼플섬, 담양 죽녹원 등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가 30일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방콕-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첫 입국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전세기 입항은 지난 16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전남 관광설명회에서 체결한 '방콕-무안국제공항 인바운드 전세기 전남 여행상품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3월 말까지 14회에 걸쳐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2400여 태국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예정이다.

이날 환영행사에는 김영록 지사, 김산 무안군수, 김경연 무안군의회 의장, 이상태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객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선물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남 방문을 환영한다"며 "섬, 바다 등 멋진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인 전남에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태국에서는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전세기 입국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공항의 정기 항공편으로 1만여 명의 관광객 추가 방문이 예정돼 역대 최대 태국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세기를 통한 첫 입국 관광객 174명은 목포 해상케이블카, 신안 퍼플섬, 담양 죽녹원 등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3박4일간 둘러볼 예정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태국에 이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무사증은 외국인에게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하도록 하는 제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기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전국,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1000평 이상. 010-9582-7400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좌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